

데스크 시각



김 일 환
편집부국장

국가 부채 폭증, 가계 부채 폭탄, 극심한 불황, 소비 절벽, 고용 절벽, 수출 부진, 조선·철강 침체,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트럼프노믹스, 중국 사드 반발...

대통령과 비선 실세가 만들어 낸 막장 드라마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키워드들이다. 그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인 것은 없으며 온통 위기의 신호등뿐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세계정책연구소 미셸 부커 소장은 지난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회색 코뿔소'(Gray Rhino)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다. 이 말은 '위험 신호를 내뿜으며 돌진하는 위기'를 가리키는 말로 자세히 풀이하자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회색 코뿔소(Gray Rhino)가 달려오고 있다

한다'는 말이다.

작금의 우리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신호들을 이 개념에 대입해 보면 답은 확연하다. 내년 이후 한국 경제가 맞이할 혹독한 시련의 전조로 해석된다. 당장 대비하지 않으면 제 2의 IMF사태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당장 드러나는 지표가 외환 보유액을 제외하고는 IMF사태가 터지기 1년 전인 지난 1997년과 흡사하다고 한다.

곳곳에 켜진 위기의 신호

최근 IMF 고위 관계자가 한국 경제에 경고한 내용만 봐도 위기의 현실을 알 수 있다. 지난 1일(현지 시간) 쿠시 마타이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뉴욕에서 열린 '한국 경제 리뷰' 세미나에서 한국의 구조 개혁이 지지부진해 중장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그는 위험 수준을 넘어선 가계 부채,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낮은 수준의 여성·젊은 층의 노동시장 참여율,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생산성, 내수와 서비스업 주도형으로의 경제 구조 전환 지연 등 다섯 가지 부문을 위험 징후로 지적했다.

삼성증권도 최근 발표한 2017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 약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거시경제 지표에만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도 최악의 상황이라는 평가다. 기업들은 커지는 불안감에 돈을 풀지 않는다. 곳곳에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민 가계도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기에 지갑을 꽂고 닫는다. 백화점은 물론이고 전통시장조차 손님이 급감하고 있다. 식당들도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도심 상가는 공실이 늘어가고 불황에 문을 닫는 가게도 줄을 잇고 있다.

상황은 점차 악화 일로인데 정부는 대응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정 농단 사태로 국정 공백이 길어지고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황교안 총리 체제도 현상 유지에 급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경제정책 총괄 부처이자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도 부총리 교체 불발로 사실상 정책 추진에 손을 놓고 있고 실무자들은 서로 눈치만 보는 실정이라고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다간 위기 수습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높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정쩡한 모습의 현내각에 맡겨 놓을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폐쪽으로 치닫는 여당, 동력을 잃어버린 새누리에 진두지휘를 맡길 수도 없다.

야당 수권능력의 시험대

결국 현 정국을 주도적으로 헤쳐 나갈 야당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을 이끌어 내는 것과 동시에 경제 불안을 불식시키고 위기를 수습하는 투트랙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당장 경제 의사들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경제 전반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서야한다. 그리고 서둘러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 모든 것은 원칙에서 재검토해 현 난국을 타개해 나갈 위기관리형 경제부총리를 세우는 데 힘을 내놓으라는 이야기다.

이것이 민주당 및 국민의당의 수권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대안정당이라는 말만 앞세울 게 아니라 국민을 안심시킬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다.

아직도 국민은 IMF사태로 대변되는 국가 경제 붕괴의 뼈아픈 고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두 번 다시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 두 야당에 부여된 중요한 임무임을 자각해야할 것이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社說

국정 혼란 수습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여야는 '여·야·정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사실상 여·야·정 협의체가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하지만 이 협의체가 민생·경제·안보 위기 등 각 분야의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벌써부터 의문이 든다.

당장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 것인지도 미지수다.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 지도부는 국정 수습보다는 당권에 '올인'하면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친박 지도부와 야당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 정진석 원내대표 등이 사퇴하면서 협상 장구마저 사라진 게 현실이다.

탄핵 정국에서 국정의 주도권을 넘겨받는 아군은 제대로 된 국정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야 야당인 민주당은 비전 부족으로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 정국에서 포스트 탄핵에 대비한 '선(先)총리' 해결을 뒤로 미루더니 막상 탄핵이 이뤄지고 나니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문제도 난항을 거듭했다. 국민의당이 백지위임까지 했으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12일 '유일호 체제' 유임을 선언하자, 13일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마지못해 가닥을 잡았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담대하고 성숙한 국정 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십 보다는 조기 대선과 광장의 민심만을 염두에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정 공백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민심은 속된 말로 복장이 터질 지경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국정 수습에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국회 해산마저 거론하는 발은 아군은 제대로 된 국정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야 야당인 민주당은 비전 부족으로 비판받고

촛불 민심 외면한 국정 교과서 강행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촛불 민심은 '박근혜표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이 대표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13일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유예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 촛불 민심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다.

이날 이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보고회에서 "역사 교과서는 올바른 역사 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기존 방침대로 강행할 것처럼 답변하고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수정할 것처럼 답을 해 혼란을 줬다. 이 부총리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역대 정부의 공과를 균형

있게 기술한다는 편찬 기준에 따라 집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달 말까지 국정교과서 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다.

지난 12일 교육부가 연 대한민국과 관련한 학술대회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개된 올바른 교과서는 교육부가 언급한 내용이 허언이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더불어 민주당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국정 역사교과서 여론조사 참가수가 7월(11월 7일~13일)만에 줄속으로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 탄핵 가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동력과 명분은 적지 않게 하고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수정할 것처럼 답을 해 혼란을 줬다. 이 부총리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역대 정부의 공과를 균형

은편칼럼



심 명 섭
대한문화작가회 광주·전남 회장

준비 안 된 노후는 재앙이다

종착역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뒤돌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마는 그래도 오늘 아침 한두 점 지난날들의 기억들이 꿈틀거리고 있음은 비단 퇴직을 앞둔 나 혼자만의 심경은 아닐 것이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와 함께 요즘 신문과 방송에 유난히도 고령화, 은퇴, 저출산이란 단어가 많이 나온다.

현대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수준 향상으로 인해 인간 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직장을 퇴직해도 남은 인생이 40여년이다. 이 긴 기간 동안 제2의 인생설계가 필요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6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결혼 기피 현상과 저출산으로 인해 2305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남자 2만 명, 여자 3만 명 정도만 살게 될 것이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등 암울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중국의 유명한 시인 주시중은 우리 인생에는 5계가 있다고 하였다. 생계(生計), 신계(身計), 가계(家計), 노계(老計), 사계(死計)다. 이 단어는 은퇴를 목전에 둔 나에게 많은 생각을 자아내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계, 신계, 가계 이 세 가지의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노계, 사

계는 조금 소홀히 한 것 같다. 그 결과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노계를 준비하지 않아서 아니 못해서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 요양원에 가실 분들도 많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이가 들면 내 발로 먼저 갈 것인가? 아니면 자식들이 보낼 때까지 버티다 갈 것인가. 생각하면 역장이 무너진다. 그렇다면 내발로 먼저 가야한다. 이것이 세대 간 차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식들이 보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게 속상해 하신다. 그런데 노계를 준비한 사람은 자신의 발로 조금이라도 서비스가 좋은 시설로 간다는 것이다.

요즘 친구들 모임에 가면 집에 계시는 부모님이 치매가 심한데 어디 좋은 요양원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상당부분 차지한다. 그래서 몇 곳이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그 후로 보통 보름 전후해서 어지없이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다. 부친상, 또는 모친상,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모시고 있었을 것인데 하면서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을 본다. 집에 계셨으면 그렇게 빨리 안 가신다. 새로운 곳에 간다는 자체가 이미 올 것이 왔구나 생각

하신다.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분들은 일단 거의가 만성질환자들이다. 당뇨나, 혈압, 심장병 등 다들 조금씩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낯선 곳에 가서 보는 것은 아침 저녁 의사들이 하얀 옷 입고 왔다 갔다 하지, 간호사를 뛰어들다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침대가 아무리 깨끗하고 칼로리가 풍부한 식사나 온돌 그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다. 먹는 것도 보는 것도... 그래서 당뇨, 혈압 등이 더 올라간다. 그래서 보통 보름이나 한 달안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고 또 한 달이 지나면 조금 적응이 되어 오래 가게 되는 분들도 많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위력은 여전하다. 따라서 준비 안 된 아니 준비 못한 노후는 결국 재앙이다. 그렇다고 3포 5포의 청년백수시대에 은퇴자들의 재취업은 자식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고통을 수반한다. 월급이 끊긴 아버지, 더 이상의 수입이 없는 가정의 기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절실하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김 종 구
담양군 축산단체 협의회장

조류인플루엔자 국민지혜 모아 극복하자

로서는 철저한 방역 이외에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어 답답한 실정이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오리농가는 물론 관련 산업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 이후 2년 여에 걸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오리산업은 반 토막 나갔다는 실정이다. 오리산업은 존폐위기, 농가들은 생사기로운에 서있는 게 현실이다.

농가들로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앞선 데 났친 격으로 소비자들의 닭, 오리 소비에 대한 불신도 커가고 있다. 농가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닭·오리를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것이다. 닭, 오리 질병검사 과정은 매우 철저하다. 병아리 분양 전 축사 내·외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검사결과에 따라 사육을 시작한다. 25일령 쯤, 폐사체 중간에 검사하며, 출하기 2~3일 전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최종적

으로 도압장에서 출하한다. 도압장에서도 마지막 검사 결과를 꼼꼼히 따져 고기를 시중에 유통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사람에게 감염된다면 닭, 오리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할 수 있겠는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0℃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해도 사멸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된 조리를 할 경우에는 먹어도 인체 감염 위험이 없다는 사실이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닭, 오리 산업에 종사하는 새롭고 국민 먹을거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농가들이 존폐가 걸린 문제이니만큼 철저하게 위생,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연료에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닭, 오리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등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보도에 지면을 할애해주기 바란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보다는 농가와 지역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담았으면 한다. 특히 해외사재를

열거하여 인체 감염에 대한 추측성 보도 및 혐오감을 주는 실처분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했으면 한다. 아울러 유통가금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강조하는데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들이 주변이다. 그런데 철새도래지에 방역만으로 AI차단이 가능할까. 농가들로서는 이같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탐방로를 폐쇄하기 전에는 탐방객들의 차량이나 신발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감염경로를 추측해보자면 철새가 이동할 때 발생된 배설물이 축사나 축사주변에 배출했을 경우와 들란 등에 먹이사냥에 나선 철새와 텃새의 교류 및 설치류인 쥐나 들고양이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계 당국과 축산농가의 부단한 노력에 어우러질 때 조류인플루엔자를 이겨내는 힘이 나올 것이다. 또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닭, 오리를 소비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 상생의 길이 아닌가 싶다.

無 等 鼓

전남도가 섬진강에서 어린 연어를 방류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부터다. 지난 해까지 17년간 모두 718만 마리가 방류됐지만 돌아온 연어는 2338마리에 불과했다. 회귀율이 0.03%인데도 치어 방류를 계속하는 이유는 식용보다는 하천 생태계 복원에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수산 양식 시대

우리가 먹는 연어는 모두 양식이다. 그중에서도 노르웨이 산이 98%다. 노르웨이 산 양식 연어는 플라스티크 사지에서 부화해 커다란 수조에서 사료를 먹으며 자란다. 대서양 가두리양식장에서 몸집을 키워 가공공장에서 생을 마감한다. 세계 최대 연어 양식 업체인 노르웨이 마린하베스트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자란 연어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데는 72시간이면 충분하다.

10년 전 처음 국내에 들어온 노르웨이산 연어가 얼마 전 광어를 제치고 횡감용 생산 1위 자리에 오른 것도 빠른 배송 시스템에 따른 신선도 유지 덕분이다. 마린하베스트는 연어 양식만으로 연간 4조 원의 매출에 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수산물 부족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을 '피슈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지구촌 인구 증가와 중국인들의 수산물 소비 증가로 피슈플레이션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 피슈플레이션의 대안으로 수산 양식이 각광받고 있다.

전남도의 양식어업 생산액이 10개월 만에 1조 원을 돌파했다. 올 들어 10월 까지 1조496억 원을 생산해 지난해에 비해 성장률이 16%에 달했다. 김과 전

북 양식으로만 2970억 원씩의 생산액을 올렸다. 국내 수산물 양식의 70%는 전남

산이다. 전남도는 '잡은 어업'이 한계에 왔다고 보고 2020년까지 전복·해삼·조파·새우·바다송어 등 5대 양식 품목을 육성하기로 했다. 고흥에선 바다송어 양식에 성공해 일본 수출을 시작했다.

한류 음식 바람을 타고 '치맥'에 이어 김을 맥주 안주로 먹는 '김맥'이 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김맥에 전남산 김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양식 생산에만 집중하기 때문인데 이전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정필수 정치부장 bungy@kwangju.co.kr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풀냄 사랑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안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